



명남재 | (주)경동엔지니어링
수자원부 전문
(hyspe@lycos.co.kr)

경주의 수해방지림과 경주선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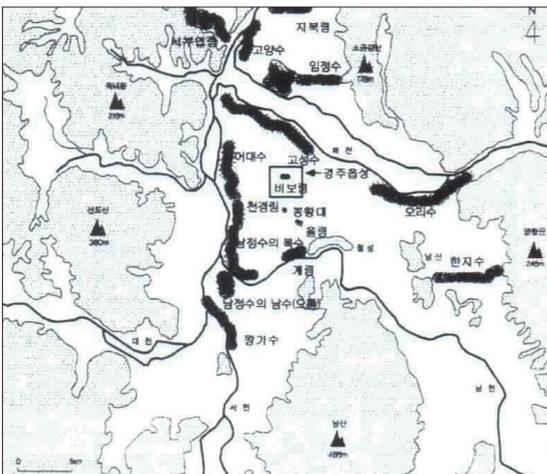
1. 경주의 수해방지림

수해방지림(水害防止林)이란 하천범람으로 인한 마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방을 쌓고 물흐름에 의한 제방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방주변에 나무를 식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해방지림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마을원림에 관한 연구」에서 강변형의 마을숲을 수해방지 목적으로 조성하였다고 발표하면서 수해방지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수해방지림의 효과는 조선시대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5년 대사간인 홍양호의 상

소문에 “압록강가에 버드나무를 심으면 오리(五利)가 있습니다. (중략) 셋째는, 물로 제방이 터지는 것을 막는 일”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와 같이 제방을 쌓고 숲을 조성하는 것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중요한 제방관리기법 중 하나였다.

조선시대에는 수해방지목적으로 조성된 제방과 수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언사(堤堰司)를 운영하였으며, 제방에 식재된 수림에 관련된 대장, 제방에 의하여 보호되는 몽리면적(蒙利面積)에 관한 대장(臺帳)을 만들고, 제방축조에 대한 허가, 폐연(廢堰, 제방기능을 없애는 것)에 대한 처리, 제방을 훼손하거나 제방내 농사를 짓는 사람을 적발하여 벌을 내리는 것이 제언사가 담당하는 업무였다. 지금의 하천관리자가 하천관리하는 방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시 작성된 「조선의 임수(林藪)」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해방지림이 102개소가 있었으며, 경주에도 하천을 따라 수해방지림이 조성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주읍성을 중심으로 형산강, 북천, 남천가에 읍치숲을 조성하였으며, 하천가에 조성된 읍치숲은 수해방지림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경주에 조성된 수해방지림을 살펴보면 북천에는 고성수, 오리수, 임정수가 조성되어 있으며, 형산강에는 왕가수, 남정수, 천경림, 어대수, 고양수 등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일부 지명에서만



(그림 1) 경주읍성의 위치와 읍치숲

숲과 관련된 명칭들이 남아있을 뿐 수해방지림과 관련된 숲은 볼 수 없고, 분황사 주변 일부 구간에 신라환경의 숲이 조성되어 있으나 이는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수해방지를 목적으로 조성된 수해방지림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현재 도로를 따라 식재된 나무는 가로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 수해방지림으로 볼 수 없다.

2. 경주의 하천현황

경주 시내를 지나가는 하천을 살펴보면 경주의 서쪽에 위치한 형산강, 북쪽에 위치한 북천, 남쪽에 위치한 남천을 들 수 있다.

형산강은 울주군 두서면에 위치한 북안천이 북쪽으로 흐르면서 이조천, 대천의 물을 만나고 경주를 지나면서 남천, 북천의 물을 받아들이고 칠평천, 기계천과 만나면서 형산강은 방향을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포항을 거쳐 영일만으로 들어간다. 형산강의 유로연장은 63km, 유역면적은 1,133km²이다. 형산강은 경주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서천으로 불리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서천은 부의 서쪽 4리에 있다. 근원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인박산에서 나오고, 하나는 목장산에서 나오며, 하나는 지화곡산에서 나와 합류하여 형산포로 들어간다”고 기술되어 있어 지금의 형산강을 가리키고 있다. 서천의 발원지인 인박산은 지금의 백운산에 해당되고, 김유신이 화랑시절 무예를 닦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목장산은 치슬령 근처에 있으며, 아직도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지화곡산은 개략적인 위치는 추정 가능하나 정확하게 어디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북천은 알천(關川), 발천(撥川), 혹은 동천(東川)으로도 불리었다. 삼국사기에는 알천(關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삼국유사에서는 신라의 왕비인 알영의 입술이 닭의 부리와 같았는데 월성의 북천에서 목욕시키자 그 부리가 떨어져 나갔다가 하여 발천(撥川)이라고도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동천에 대한 설명으로 “부(府)의 동쪽 5리에 있고 북천이라고도 하며 알천이라고도 한다. 추령에서 나와 굴연으로 들어간



〈그림 2〉 경주시내 하천현황

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남천(南川)은 문천(蚊川), 사천(沙川), 사등이천(史等伊川)으로 불리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문천은 부의 남쪽 5리에 있고 사등이천의 하류이다. 사등이천은 황천이라고도 하며 부의 동쪽 24리에 있다. 근원이 토함산에서 나와서 서천으로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불리고 「경주사랑이 이야기, 천년 신라영육과 형산강」에 남천과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는데 내용이 재미있어 옮겨본다.

토함산에서 흘러내려 사등이내를 이루고 수남 원들을 지나 양지버든, 갯들을 지나 월성 남으로 흐르니 보통 남천내라 부른다. 남천내는 문천이라고도 하는데 모래가 유난히 많다. 모래가 많으니 경주말로 물개내(沙川), 물개(모래)라는 소리가 모갱이(모기)와 비슷하니 조선시대 서울양반들이 경주 와서 시를 지을 때, 운률에 맞춰 문천(蚊川, 汶川)이라 했으니 풀이 하면 문(蚊)은 모기 문이니 ‘모기내’라는 말로 얼토당토않은 이름이 되어 굳어지고 말았다.

또한 남천의 상류를 한문으로 사등이천(史等伊川)이라 적었는데 이는 ‘사등이내’라는 토박이말을 소리 나는 대로 한 자를 빌어 적은 것이다. ‘새사’는 동쪽이라는 우리말이니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새바람이라 일컫는 말과 같은 것이다. 등이는 등성이, 천(川)은 내니 동쪽등성이에서 흐르는 거랑, 새등이내를 한자로 적으려니 사등이천(史等伊川)이 될 밖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우리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문자로는 우리말을 바로 나타내기 어려우므로 새로 글자를 만든다고 하셨으니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뜻을 다 시금 느끼게 된다.

과연 남천은 모래가 많은 하천이며, 남천을 사천(沙川)이라 하면 쉽게 이해되지만, 남천을 문천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모래는 물개, 모기는 모갱이, 물개와 모갱이 가 발음이 비슷하니, 모래가 많은 하천을 모기가 많은 하천이라고 불렀다고 하니 옛 선비들의 말장난이 너무 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경주의 수해복구

경주의 수해와 관련된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경주의 북천의 지형적인 특성 및 수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경주의 수해와 수해복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분지의 홍수범람이 어찌 북천만의 문제이고 형산강, 남천은 홍수를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경주분지의 지형적인 특징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3) 북천유로 변곡점 및 알천수개기 위치도

북천은 토함산에서 발원하여 계곡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면서 덕동호, 보문호를 만들고, 남서방향으로 흐르던 물길이 금학산과 명활산 사이의 협곡을 빠져나오면서 갑자기 넓은 평야로 흘러 들어간다. 그런데 북천의 물길이 주변의 특별한 지형 변화도 없는데 갑자기 물길을 바꾸어 북서쪽으로 흐르기 시작한 후 형산강으로 유입된다.

많은 학자들이 북천의 물길이 갑자기 바꾸는 이 지점을 통

하여 경주의 수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지형적으로 보면 이 부근이 논으로 이용되는 습지인 점을 고려하면, 역사 이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북천의 물길이 이 습지를 흘러 남천방향으로 흘렀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다수 있다. 지형적으로 보아도 북천의 좌안 농경지 지반고가 높고 반월성이 있는 남천방향으로 지반고가 서서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북천의 물이 제방을 월류한다고 가정하면 북천을 월류한 물은 다시 북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남천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보문호에서 취수한 물은 남산 주변의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고, 남는 것은 남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북천의 지반고가 남천의 지반고에 비하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북천이 금학산을 빠져 나오는 지점, 알천북로 주변의 바위에 금석문(金石文)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주 동천동 알천제방수개기(關川堤防修改記)」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하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북천범



(그림 4) 알천제방수개기 전경, 오른쪽으로 북천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림 5) 알천제방수개기 근경. 상태가 매우 양호해 글씨를 알아보기 쉽다.

람으로 인하여 제방이 무너졌는데, 고려시대에 바위와 나무를 이용해 쌓았던 제방이고, 1707년 제방을 보강하고 하천을 준설할 때 옛날 흐르던 하천모습대로 물길을 터 주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작업담당자 이름을 새겨 넣었다.

關川西注邑基東坵：서쪽으로 흘러가는 알천이 홍수에 읍의 동쪽 제방이 무너졌다.

高擁木石自白麗氏：나무와 바위로 높은 제방을 쌓은 것은 고려 때이다.

今又修改歲維丁亥：올해 정해년 [1707년] 제방은 다시 수리되었다.

回勢利導水由古道：옛날에 흐르던 하천을 따라 물길을 터 주었다.

磨峨記蹟垂之千億：바위에 이 사실을 기록하여 억년 동안 전하고자 한다.

知府延安李公書：경주부윤 이인징(李麟徵, 1643~1729, 본관은 延安)이 글을 쓰다

全希天柵聖經金命雄任基重贊成：전희천(全希天), 수성경(柵聖經), 김명웅(金命雄), 임기중(任基重)의 도움을 받았다.

孫汝義徐津金昌道鄭世禎僧渭性董役：손여의(孫汝義), 서진(徐津), 김창도(金昌道), 정세정(鄭世禎), 그리고 스님 위성(渭性)이 제방 수리작업을 책임졌다.

孫公主之色吏李震溟金始經：실질적으로 손여의(孫汝義)가 최고책임자였으며, 이진명(李震溟)과 김시경(金始經)은 이 작업을 감독하였다.

동천제방에 관련된 내용은 조선시대 작성된 동경잡기(東京雜記)에도 실려져 있다. 동경잡기는 1669년 경주부윤 민주면(閔周冕)이 이채(李塚), 김건준(金建準)과 함께 편찬한 경주부 읍지(邑誌)다. 고려시대 경주를 동경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동경잡기라 하였다. 동천과 관련된 내용은 동경잡기 권1 산천(山川)에 실려 있다.

동천：북천(北川) 또는 알천(關川)이라고 하는데 부(府) 동쪽 5리에 있다. 추령에서 나와 굴연(堀淵)으로 들어간다. 전설에 따르면 냇물이 동북쪽으로 흘러와 곧장 읍의 거주지를 향하는 까닭에, 고려 현종(1009-1031) 때에 전라·충청·경상 3도

의 군정(軍丁)을 징발하여 돌을 쌓아 제방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해서 수해를 방지했다고 한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북천이 금학산과 명활산을 빠져나와 남서쪽으로 흘러 경주읍성을 향하고 있어 제방축조가 매우 시급하여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 근무하는 군인들을 투입하여 알천제방을 쌓고 제방 주변에 숲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국토면적의 2/3에 해당하는 전라도, 충청도 및 경상도에 근무하는 군인 중 상당한 인력을 차출하여 제방을 쌓은 것을 보면 경주는 매우 중요한 도시이며, 제방유실에 의한 침수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알천제방 축조는 국가적인 사업이었던 것 같다.

또한 동경잡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방을 축조하고 제방 주변에 숲을 조성하는 것은 호우에 제방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호안공법이다. 알천제방을 쌓고 조성한 숲의 이름은 오리수라고 불리우며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조선의 임수(林藪)」에서는 이 숲에 대한 내용이 실려져 있으며 분황사에서 명활산까지 5리에 걸쳐 나무를 심어져 있어 얻어진 숲의 이름이다. 이 숲의 흔적은 명활산 자락에 「숲머리」라는 지명이 일부 남아 있고, 분황사 주변에 「신라 왕경숲」에서 오리수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알천제방을 쌓고 제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숲을 조성한 것은 수해방지립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산강가에 조성된 숲 및 남천가에 조성된 숲은 수해방지립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읍치숲의 기능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4. 경주의 토지이용

일제강점기시 작성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토지이용현황 및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을 비교해보면 일제강점기시 취락지구, 밭으로 이용되던 지역은 모두 취락지구로 변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다만 일제강점기시 논으로 이용되던 지역은 아직도 논으로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분황사가 위치한 곳은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보면 북천의 자연제방에

해당하는 곳으로 황룡사가 위치한 곳보다 상대적으로 침수범람의 위험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주읍성이 자리한 곳도 대부분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홍수범람으로부터 상당히 안전한 곳으로 볼 수 있다. 경주읍성 주변에 산재해 있는 많은 고분들이 이 지역이 홍수로부터 안전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알천제방수개기에 따르면 북천의 물이 제방을 월류하면 경주읍 방향으로 물이 유입되는 것일까? <그림 6>과 <그림 7>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주읍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취락지구, 밭, 고분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지역은 홍수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볼 수 있다. 분황사 주변에서 월류한 물은 경주읍성을 향하여 흘러가지 않고 안압지, 반월성 및 국립경주박물관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지역은 취락지구가 아닌 습지로 활용되는 구간이다. 일반적으로 하천제방을 월류한 물은 하류로 이동한 후 다시 그 하천으로 빠져 나오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경주의 경우에는 북천의 물이 제방을 월류할 경우 북천 하류의 좌안 지반고가 높아 북천으로 다시 빠져나가



<그림 6> 200 초 토지이용과 지형개관



<그림 7> 현재 토지이용현황

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지반고가 낮은 반월성 방향으로 물이 흘러간 이후 남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지형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남천은 경주시내에 침수위험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가? 역사 이래 남천이 월류하여 경주 시내를 침수시켰다는 기록은 보지 못한 것 같다. 지형특성을 보더라도 남천의 물은 범람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하상변화 및 하천선형도 신라시대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월성 좌우에서 남천을 넘어가기 위한 교각으로 월성교가 있으며 현재 월성교 복원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반달동으로 넘어가기 위한 효불효교가 있었으나 지금은 교각기초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 효불효교라 불리는 칠성다리에는 독특한 사랑의 전설이 전해져 온다.

다리 부근에 살던 과부는 남천 건너 수남(水南)에 사는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 밤이면 몰래 이 냇물을 건너 밀회를 즐기곤 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들키게 마련, 이를 눈치 챈 자식들은 고만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어찌랴, 자식들은 의논 끝에 독특한 방법으로 대처하기로 한다. 곧 어머니가 밤중에 물을 건너는 일이 위험하다 하여 자식들이 힘을 합쳐 여기에 돌다리를 놓아 준 것이다. 이에 어머니인들 마음이 편했을까, 다리가 놓인 이후 어머니는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 내를 건너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자식들의 행동이 효일까 불효일까?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후세인들은 이 돌다리에 효불효교(孝不孝橋)라는 이름을 지어 붙였다.

효불효교의 교각기초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하천의 지형변화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월성교도 신라시대 조성된 교각위치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남천의 지형은 신라시대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천에 커다란 홍수가 발생하였다면 효불효교의 교각기초가 온전히 유지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신라시대 이후 남천의 지형변화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추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림 8〉 월정교 모습(현재 복원공사 중)



〈그림 9〉 효불효교의 교각 기초(남천에 위치하고 있다)

5. 경주선상지

경주읍성이 위치한 곳이 밭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취락지구가 매우 발달하여 있으며, 이 지역에 많은 고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 신라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은 홍수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인식되어져 있다. 경주읍성이 자리한 곳이 형산강의 범람원이라든가, 북천의 범람원 혹은 남천의 범람원이라면 밭, 취락지구, 고분 등으로 토지를 이용하기가 곤란하다. 하천범람원은 대부분 논으로만 활용 가능할 뿐, 밭으로 이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지형이기 때문이다. 범람원에 가옥을 짓고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옥이 홍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활터전을 잡고자 할 경우에는 식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으나 홍수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천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하천과 인접한 구릉지에 생활터전을 잡고 일부 주민들은 범람원 중 지형이 다소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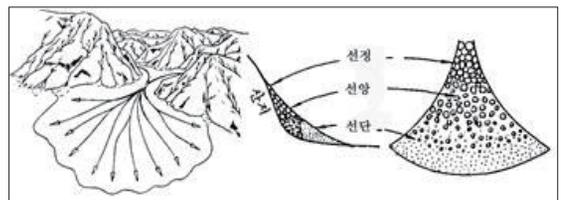
자연제방 등에 생활터전을 잡기도 한다. 또한 영면해야 하는 무덤을 범람원에 조성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고인이 영면할 수 있도록 무덤을 대부분 구릉지에 조성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주읍성의 지형을 하천범람원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보면 경주읍성은 하천범람원이 아닌 다른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경주읍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하천범람원이 아닌 선상지에 자리 잡고 있다면 경주읍성의 토지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선상지내 유로가 안정되어 있다면 선상지내에 취락지구 및 밭으로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선상지는 생활에 필요한 식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며, 식수만 확보된다면 선상지내 취락지구 발달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경주읍성내에는 우물이 80개가 있다고 하니 성 안 사람들이 식수를 조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림 10〉 선상지의 지형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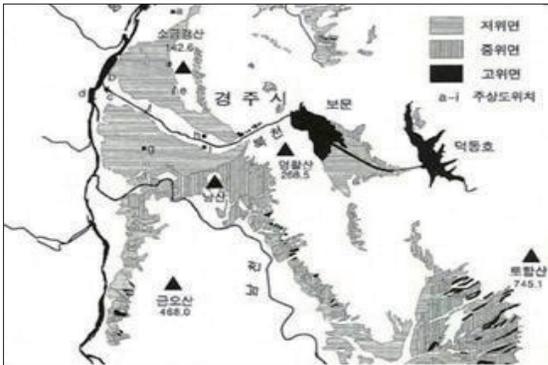
선상지(扇狀地, alluvial fan)는 산지의 좁은 골짜기에서 평지로 흘러나오는 하천이 경사가 급변하는 곡구(谷口)에 토사가 쌓여 부채모양으로 발달하는 지형이다. 지형도를 보면 곡구를 중심으로 등고선이 동심원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선상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그림 11〉 선상지 모식도

선상지는 일반적으로 작은 하천에서 잘 발생하며, 큰 하천에서는 곡구에서 하상의 경사가 급변하지 않고 유량이 많아 토사가 곡구에 집중적으로 쌓이지 못하기 때문에 선상지를 형성하지 못한다. 선상지는 대부분 자갈과 모래로 구성되므로 선상지를 흐르는 하천은 대부분 지하로 스며들면서 하천에는 물이 없는 무수천(無水川)이 된다. 따라서 하천수를 얻기 쉬운 선정부나 지하수면이 얕아져서 용천(湧泉)이 분포하는 선단부에 취락이 발달하기도 하며 지역에 따라 선단을 따라 열촌(列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선상지는 배수가 양호한 점을 고려하여 밭, 과수원 등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2004년 발표된 「경주 및 천북지역의 선상지 지형발달」에 의하여 경주읍성이 경주지역의 선상지에 자리 잡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그림 12>에서 저위면에 해당하는 곳에 경주읍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형등고선이 일정하게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경주읍성이 위치한 북천좌안의 저위면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밭, 취락지구 등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낭산 주변의 중위면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논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 경주 천북지역의 선상지 지형면 분류(윤순옥, 황상일 연구 참조)

이를 통하여 북천의 통수능력을 초과한 비가 내리면 북천을 흐르던 물이 명활산, 금학산 골짜기를 빠져나오면서 명활산과 분황사 사이의 넓은 농경지로 유입하게 되고, 낭산 주변으로 흘러들어간 후 안압지 및 국립박물관 주변을 통하여 남천으로 빠져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명활산과 금학산을 빠져나온 북천의 물이 경주읍성을 향함으로서 경주읍성에 거

주하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주읍성이 위치한 곳은 홍수피해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여도 무방하고, 황룡사가 위치한 곳, 낭산 주변, 안압지 주변 등 현재 논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홍수가 발생할 경우 침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6. 황룡사지 입지현황

분황사와 인접해 있는 황룡사지. 현재 사적 6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황룡사에 대하여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황룡사 9층석탑이 있었던 곳.

황룡사는 신라진흥왕 14년(553년)에 세워진 사찰이며, 고려 고종(高宗) 25년(1238년) 몽고의 침입으로 모두 불타 버렸다. 신라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진흥왕대에 만들어진 황룡사장륙존상(皇龍寺丈六尊像), 진평왕이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허리띠(天賜玉帶), 그리고 선덕여왕대에 만들어진 황룡사구층목탑(皇龍寺九層木塔)이 신라삼보이며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중 황룡사장육존상과 황룡사구층목탑 등 2개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황룡사이다. 또한 솔거가 황룡사벽에 그린 노송도(老松圖)에 새들이 앉으려다가 부딪쳐 떨어졌다는 일화를 가지고 있는 사찰이기도 하다.

황룡사가 위치한 곳은 산자락이 아닌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홍수시 침수위험이 매우 높은 습지에 성토를 한 후 세워진 사찰이다. 이러한 사실은 1976년부터 시작하여 8년간 진행된 황룡사지에 대한 발굴조사결과를 통하여 황룡사지가 위치한 곳이 늪지대이고,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매립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지역이 늪지대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4년(553년)조에 서도 기록되어져 있다.

“봄 2월에 왕이 담당관청에 명하여 월성(月城) 동쪽에 신궁(新宮)을 짓게 하였는데, 황룡(黃龍)이 그 땅에 나타나자 왕이 이를 의아하게 여겨, 고쳐서 사찰로 삼게 하고 황룡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春二月 王命所司 築新宮於月城東 黃龍見其地 王疑之 改爲 佛寺 賜號曰皇龍”

용이 사는 곳은 물이 모여 있는 곳이고, 궁궐을 짓는 곳이 바로 높지었던 것이다.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궁궐 대신 사찰을 건립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높이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매립하여야 했을 것이다.



(그림 13) 황룡사 복원모형(네이버 참고)

또한 삼국유사에 따르면 황룡사는 칠처가람(七處伽藍) 중 1개소이며 용궁 남쪽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어져 있다. 칠처가람은 전불시대(前佛時代)의 일곱 개의 가람터를 의미하며, 이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불국토라는 믿음이었다. 칠처가람설에 따르면 용궁 남쪽에 황룡사, 용궁 북쪽에 분황사가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 분황사 및 황룡사 사이에 용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용궁이라는 의미는 커다란 연못이 딸린 건축물을 지칭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연못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라시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물을 공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형을 이용하여 북천의 물을 연못으로 유도하던가, 아니면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었을 것이다. 연못이 가지고 있는 곳은 주변 지형보다 낮은 곳일 수밖에 없다. 황룡사를 건설한 곳이 습지이고, 용궁이 위치한 곳도 습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칠처가람에 관한 삼국유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유사』 흥법(興法) 제3 아도기라조(阿道基羅條)에 의하면, 신라에 불교를 전래한 아도(我道)는 고구려인인 그 어머니로부터 신라의 서울에는 전불시대의 일곱 개의 가람터가

있으며, 앞으로 3,000개월이 지나면 성왕(聖王)이 나와 크게 불교를 일으키게 될 것이니 그곳에 가서 불교를 전파하라는 당부를 받는다. 그 일곱 곳이란 ① 금교(金橋) 동쪽 천경림(天鏡林: 지금의 興輪寺), ② 삼천기(三川岐: 지금의 永興寺), ③ 용궁(龍宮)의 남쪽(지금의 皇龍寺), ④ 용궁의 북쪽(지금의 芬皇寺), ⑤ 사천(沙川)의 끝(지금의 靈妙寺), ⑥ 신유림(神遊林: 지금의 天王寺), ⑦ 서청전(婿請田: 지금의 曇嚴寺)이다.

三國遺事3卷-3興法-阿道基羅-04

按我道本碑云: 我道高麗人也, 母高道寧, 正始間, 曹魏人我(姓我也)掘摩率使句麗, 私之而還, 因而有娠. 師生五歲, 其母令出家. 年十六歸魏, 省覲掘摩, 投玄彰和尚講下就業. 年十九, 又歸寧於母, 母謂曰: “此國于今不知佛法; 爾後三千餘月, 鷄林有聖王出, 大興佛教. 其京都內有七處伽藍之墟: 一曰金橋東天鏡林, [今興輪寺. 金橋謂西川之橋, 俗訛呼云松橋也. 寺自我道始基而中廢. 至法興王丁未草創. 乙卯大開. 眞興王畢成.] 二曰三川岐(岐), [今永興寺. 興興輪寺開同代.] 三曰龍宮南, [今皇龍寺. 眞興王癸酉始開.] 四曰龍宮北, [今芬皇寺. 善德*(王)甲午始開.] 五曰沙川尾[今靈妙寺. 善德王乙未始開.] 六曰神遊林, [今天王寺. 文武王己卯開.] 七曰婿請田, [今曇嚴寺]. 皆前佛時伽藍之墟, 法水長流之地. 爾歸彼而播揚大教, 當東嚮於釋祀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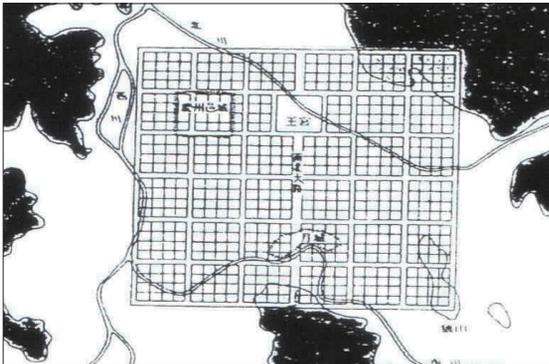
7. 신라왕경과 습지

국립경주중앙박물관에 가보면 신라왕경 모형도가 전시되어 있다. 신라왕경 모형도를 살펴보면 남천 주변에 위치한 반월성, 황룡사 주변에 주택가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신라왕경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어 왔으며, 지금까지도 국내외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진행되어 오고 있다. 신라왕경에 대한 연구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단편적으로 보인 왕경(王京) 전체 방의 수 및 왕경의 규모에 대한 기록, 신라왕경의 유물조사 등을 통하여 신라왕경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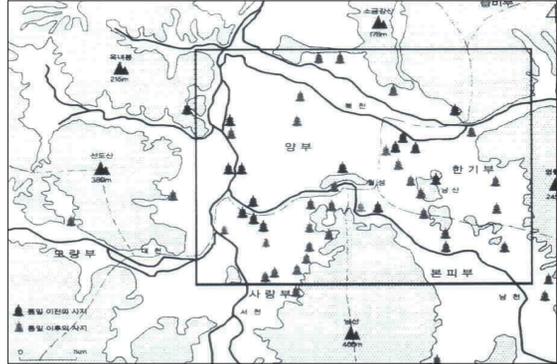
삼국유사 진한(辰韓)조에 “신라 전성기에 경중(京中)에 17

만 8936호, 1,360방, 55리와 35개의 금입택(金入宅)이 있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신라왕경의 번영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삼국유사 우사절유택에서는 “봄에는 동아택(東野宅), 여름에는 곡량택(谷良宅), 가을에는 구지택(九知宅), 겨울에는 가이택(加伊宅)이 있었다. 제49대 헌강대왕 때 성중(城中)에 초가집은 하나도 없었고, 처마와 담이 이어져 있었으며, 노래와 악기 소리가 길에 가득하고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에 의하면 신라 전성기 때에는 신라왕경 중심지역에서는 초가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번성하였던 것 같다. 이를 토대로 신라왕경 상상도를 작성해 본 결과와 현재 취락지구가 발달한 지역을 포함하고, 현재 논으로 이용하고 있는 낭산 주변에도 도시가 발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사찰 분포에 대한 연구결과도 경주읍성이 자리한 취락지구뿐만 아니라 현재 논으로 이용하고 있는 낭산 주변에도 사찰이 건립되어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그림 14> 및 <그림 15>와 같이 현재의 지형도를 살펴보면 경주선상지에 해당하는 경주읍성이 자리 잡은 곳은 여전히 주택가로 자리 잡고 있으나 경주선상지의 중위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현재 논으로 이용하고 있어 신라시대 왕경도에서 살펴보았던 낭산 주변, 황룡사 주변에 가득 차 있던 주택들은 온데 간데 없고 습지로만 존재할 뿐이다. 현대 토목기술을 이용하여 낭산 주변의 논을 택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성토가 이루어져야 거주가 가능할 것이다. 신라시대에는 낭산 주변을 택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성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황룡사의 발굴조사결과에 따르면 황룡사지내 거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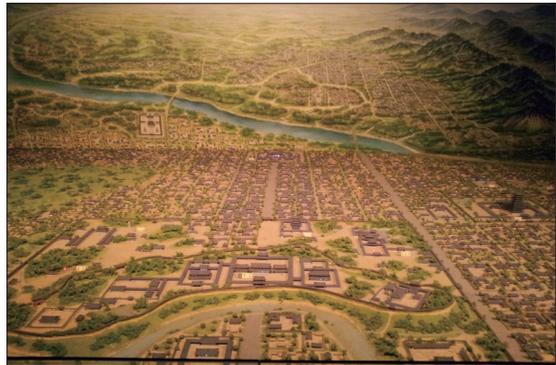


<그림 14> 윤무병의 신라왕경 상상도



<그림 15> 신라 전성기의 인구 밀집지역의 범위와 사찰의 분포

던 100여 가구를 이전시킨 것으로 보아 황룡사지는 습지를 메워 성토함으로써 침수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인식되어 주민들이 황룡사지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경주국립박물관에 전시된 신라왕경

현재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낭산 주변까지 신라왕경으로 조성되었다고 하면, 이는 신라시대에는 북천의 홍수범람으로부터 이 지역이 안전하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신라왕경을 침수시키는 것은 형산강인 서천도 아니고, 반월성을 따라 흐르는 남천도 아니다. 홍수시 신라왕경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북천이었다. 북천에 대한 치수능력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보면 비록 저지대라고 하지만 거주공간으로 사용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천 월류를 방지하기 위한 알천제방에 대한 유지관리만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보면 주택가에 내린 강우는 지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남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낭산 주변을 거주지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신라시대에는 경주를 수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알천제방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알천제방에 대한 유지관리가 소홀히 했을 것으로 추정해본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천제방수개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너진 알천제방을 보수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을 투입하였으나 홍수범람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낭산 주변을 주택가로 활용하기 보다는 농경지로 활용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장동수(2001), 수해방지립의 조성배경과 분포, 한국정원학회지 Vol. 19 No. 36.
- 장창은 옮김(2009), 동경잡기, 지식을 만드는 지식.
- 이근직, 신라왕경의 형성과정과 사원.
- 이준선, 한국역사지리,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푸른길학술.
- 황상일(2007), 고대 경주지역의 홍수가능성과 인간활동, 대한지리학회지 제42권, 제6호.
- 윤순옥, 황상일(2004), 경주 및 천북지역의 선상지 지형발달, 대한지리학회지 제39권 제1호.
- 강봉원, 경주 북천의 수리에 관한 역사 및 고고학적 고찰.

